



기보배



안산



이승운

# 도쿄 올림픽을 향해 쏜다 광주 13명 태극궁사 도전

태극궁사들이 내년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향해 다시 활시위를 당긴다.

내년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를 뽑는 첫 관문인 2021년도 양궁 국가대표 1·2차 선발전이 24~29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대한양궁협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 도쿄 올림픽을 비롯한 내년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뽑는 선발전을 원칙대로 원점에서부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1·2차 선발전에선 여자부 102명, 남자부 101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이번 선발전에 광주에서는 13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기보배(광주시청), 이승운(광주시양궁협회), 안산(광주여대)의 각오는 남다르다.

2012 런던올림픽,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기보배는 지난해 태극마크 도전에 실패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재도전의 기회를 잡았다.

기보배는 "사실상 포기했던 기회를 잡은 만큼 최선을 다 하겠다. 김수녕 선배가 세운 '올림픽 3회 연속 출전, 금메달 4개'라는 대기록을 넘어서고 싶은 바람도 크다"며 "결혼과 출산으로 체력적인 어려움

24~29일 양궁 국가대표 1·2차 선발전

기보배·이승운·안산·정시우 등 출전

'고교 3인방' 이원주·유인선·탁해운도

양궁 간판 순천시청 최미선 등 정조준

이 많았지만, 두 배, 세 배 더 노력해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 올렸다. 태극마크를 반드시 달아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청을 떠나 광주에 동지를 둔 이승운은 리우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활시위를 당긴다.

이승운은 "광주 남구청 팀 창단 소식에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광주에 왔다"며 "팀 창단이 늦어져 한동안 마음고생도 했지만, 아쉬움은 잠시 접어두고 경기에 최선을 다해 도쿄올림픽 금메달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팀 입단이라는 기대감이 광주로 온 이진희도 "소속 팀 창단이 늦어져 아쉽지만, 훈련에 최선을 다 한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

다"고 말했다. 2020년도 국가대표인 안산(광주여대)은 태극마크 수성은 물론 선수 최대의 꿈인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위대한 도전에 나선다.

광주체육 2학년 때 태극마크를 처음으로 달고 3년 연속 국가대표 자리를 지킨 안산은 "문산초 4학년 때 처음으로 활을 잡으며 세웠던 목표가 올림픽 금메달이었다"며 "이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갈고 닦은 모든 것을 쏟아부으겠다"고 다짐했다.

전 국가대표 김소연(광주시청)과 최미선(광주시청)은 태극마크 탈환에 나서며, 박세은(광주시청), 정시우(광주여대), 김민서(광주여대)는 기보배·최미선(순천시청)이 빛낸 광주 여자양궁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각오로 태극마크에 도전한다.

지난해 아시안컵 양궁 2차대회 단체전 금메달과, 유스세계양궁선수권대회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며 기량을 검증 받은 '준비된 스타' 이진용(조선대)도 광주 남양양 중흥이라는 각오로 대회에 나선다.

'고교 3인방' 이원주, 유인선, 탁해운(이상 광주체육)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초·중·고 운동부 창단보다 해체가 많아

10년간 창단 37개교·해체 41개교  
학생수 감소·진로 선택 폭 좁아진 탓

지난 10년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운동부가 창단보다 해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운동부 출신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이 좁아진 탓으로 풀이됐다.

22일 광주시교육청이 정순애 광주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창단 운동부는 총 35개교지만 해체 운동부는 41개교에 달했다.

창단 운동부를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2개교였고, 해체 운동부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7개교였다. 정순애 의원은 "운동부 창단 학교보다 해체 학교가 많아져 운동선수를 꿈꾸는 많은 학생의 희망을 빼앗아가고 있다"며 "현대 스포츠는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집중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일선 학교 운동부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교 운동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진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서 운동선수로서의 진로를 꿈꾸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상급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골프장 주중 그린피 일본보다 2.3배 높아

한국 14만3800원...일본 6만1300원  
카트 사용료·캐디피 포함 땀 3배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국내 골프장 그린피가 일본보다 갑절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국내 대중 골프장 주중 그린피는 10월 현재 14만3800원으로 일본의 대중 골프장 주중 그린피 6만1300원보다 2.3배 더 높다고 22일 밝혔다.

카트 사용료와 캐디피까지 포함하면 골프장 이용료 차이는 3배까지 커진다.

레저산업연구소는 일본 대중 골프장은 캐디 없이 즐기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카트 이용료 역시 한국보다 저렴하거나 무료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중 골프장 그린피는 2011년에는 일본보다 20%가량 높았을 뿐이다. 국내 대중 골프장 주중 그린피는 평균 11만100원이었고 일본은 9만

1700원이었다. 그러나 국내 골프장 그린피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일본은 오히려 그린피가 하락하면서 격차가 커졌다. 지난 9년 동안 국내 대중 골프장 주중 그린피는 30.6% 상승했지만, 일본은 16.7%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골프 수요가 갈수록 늘어났지만 골프장 공급은 제한적이었던 때문이다. 골프장 공급이 충분했던 일본은 골프 수요가 다소 위축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골프 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국내 골프장 이용료는 폭등했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국내 골프장이 내장객이 폭증하면서 이용료를 마구 올리고 있다"면서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지역과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강진서 배드민턴 꿈나무들 기량 겨룬다

25~31일 전국초등학교선수권 개최  
72개 팀 800명 참가 무관중 대회로

강진에서 대한민국 초등학교 배드민턴 꿈나무들의 기량과 실력을 겨루는 전국 선수권 대회가 개최된다.

제63회 전국여름철종별 초등학교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25일부터 31일까지 강진 제2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전남배드민턴협회, 강진군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72개팀, 800여 명이 참가한다.

25일부터 27일까지 단체전과 개인전, 28일부터 31일까지 개인전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관중 대회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스포츠 메카' 강진군은 매년 약 60여 개의 전국 규모 및 동호인 대회를 개최하고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대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하지만 군은 탁구전용경기장 착공,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조명등 설치, 실내수영장 리모델링 등 스포츠 시설 개선 및 보완으로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제반 여건을 확충했다.

이번 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개최가 확정됐다. 군은 방역수칙을 철



지난해 강진에서 열린 한국초등학교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 대회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준비중이다.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대회장 환경정비 및 소독, 대회장 출입시 한 방향으로만 이동, AD카드 발급 등 출입인원 식별을 통한 대회 관계자 외 출입 제한, 일일 팀별 건강 상태 점검표 제출, 일일 팀별 동선 점검표 작성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승욱 군수는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 속에 대회 및 전시훈련을 개최하겠다. 선수와 임직원 이 강진에서 머무르면서 체류형 관광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무릎 수술 페더러 "내년 1월 호주오픈 목표 재할 중"

무릎 수술을 받아 2020시즌을 일찍 마감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4위·스위스)가 2021년 1월 호주오픈 출전을 목표로 재활을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페더러는 22일(한국시간) 독일어 잡지인 '스위스 일러스트레이트'와 인터뷰에서 "현재 재활 과정을 순조롭게 소화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부담을 갖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활에 전념하려

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서 4강에 진출했던 페더러는 2월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고 그대로 시즌을 마감했다.

1981년생인 그는 "몸 상태가 100%가 되면 다시 대회에 출전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으로 보면 2021년 1월 호주오픈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더러는 "지금 라켓을 들고 하는 훈련은 2시간 이상 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통증이 없고 체력적으로도 괜찮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20회)을 혼자 갖고 있던 페더러는 이달 초 끝난 프랑스오픈에서 우승한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에게 공동 1위 자리를 허용했다.

페더러는 은퇴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은퇴에 대해서는 한 5년 전부터 계속 생각 중"이라며 "내가 테니스에 재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선수로 뛴 예정"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2관	미스터트롯: 더 무비, 소리도 없이
3관	담보
4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5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언현카드
6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9관	미스터트롯: 더 무비
7관 씨네카를	미스터트롯: 더 무비, 소리도 없이, 에브리타임 아이 다이 부나베아: 원시시대 대모험
8관 씨네카를	소리도 없이, 태양의 소녀들, 종이꽃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전시  
**경계의 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화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FOCUS  
**코리아집시'상자투의 길'**  
2020. 11. 10.(화) 19:3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FOCUS  
**연극 청문회에서 도망친 100세 노인**  
2020. 11.18.(수) ~ 19.(목)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